땅설법, 지금까지 이런 법석은 없었다

한국불교민속학회, 3월 30일 관련 학술세미나

안정사 전승 확인된 땅설법
역사적 가치 · 위상 등 조명해
민중 근기 맞춘 통속적 설법
종합 공연 예술로서 역할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공연장 북과 장구가 울리니 파란 장삼에 나무 부채를 든 스님이 구성진 가락을 뽑아낸다. "선재동자가 수행의 길을 떠나갈 때 십신으로 수행하고 화엄회상 불보살."

대중은 스님의 가락에 맞춰 〈화엄경〉의 7처 9회를 형상화 한 무대의 탑을 중심으로 앞뒤로 오간다. 또는 삼삼오오 모여 만다라를 구성하기도 한다. 시연단도 청중들도 "화엄회상 불보살"을 외치며 호응하는 모습은 그 옛날 어딘가의 저잣거리 같다.

이들이 시연한 것은 '땅설법'이라는 불교무형유산으로 그간 구전으로만 있었다고 전해지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에 전승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불교민속학회(회장 홍윤식)가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는 전승이 확인된 땅설법에 대한 역사성과 위상을 논의했다.

이날 불교민속 전문학자들은 땅설법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여러 예술행위를 통해 불교의 요지를 알리는 법석임을 강조했다.

땅설법에 대해 사재동 충남대 명예교수는 "하나의 법사 · 도창승이 가창과 강설 · 연기로 고수 내지 대중과 함께 연출하는 포교적 공연예술"이라며 "그 중에서도 가창과 강설 · 연기 중심의 강창극"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땅설법은 대중 설법을 위한 종합예술적 방편으로 땅위에서 승려들이 중생들을 교화 · 접인하기 위해 베푸는 재미있는 설법 형태"라면서 "이른바 대승적 승려들이 서민 대중의 근기 · 성정에 맞춰 펼치는 통속적 설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전승되고 있는 땅설법은 화엄신앙이 토착화되는 일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봤다. 현재 삼척 안정사에 전승되고 있는 땅설법은 석가모니일대기, 목련존자 일대기, 신중신 일대기, 성주신 일대기, 선재동자 구법기 등으로 이 같은 놀이는 모두 〈화엄경〉에 근거한다.



한국불교민속학회가 3월 30일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삼척 안정사 시연단이 땅설법을 시연하고 있다.

홍윤식 불교민속학회장은 "삼척 안정사에 전승되고 있는 화엄성중놀이와 땅설법은 일단은 〈화엄경〉에 의한 화엄성중신앙이 민속화되는 과정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엄경〉의 신앙체계가 일즉다 다즉일의 체계에서 부처의 세계가 민속신앙의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재위원 효탄 스님은 원형 발굴 · 기록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효탄 스님은 "잊혀졌던 땅설법의 원형을 발굴해 기록을 남기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라며 "만석승희와 같은 전통문화의 전모의 발굴과 문화콘텐츠화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4월 1일 지정예고
위덕왕, 왕자 명복 발원하며
577년 조성… "最古 사리기"
공예적으로 높은 완성도 보여
직지사 · 대둔사 불화 보물예고

현재 현존하는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사리기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가 국보로 승격된다. 또한 직지사와 대둔사 소장 조선시대 불화들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 공예품인 보물 제1767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을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로 명칭을 변경해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 또한 '김천 직지사 괘불도' 등 조선 시대 불화와 서책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지난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백제 왕실 사찰인 왕흥사터의 목탑지에서 발굴한 유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출토 당시 금당(金堂, 대웅전) 앞 목탑지의 사리공(舍利孔, 사리기를 넣은 네모난 구멍)에서 진흙 속에 잠긴 채 발견됐다. 이후 보존처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이 확인됐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한국의 현존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사리기이다.

사리기는 겉에서부터 순서대로 청동제사리합-은제사리호-금제사리병 순의 3가지 용기로 구성됐으며, 청동제사리합 겉면에 새겨진 명문(銘文)을 통해 577년(위덕왕 24년)에 만들어진 사실과 백제 위덕왕(威德王)이 죽은 왕자의 명복을 위해 조성됐음이 확인됐다. 이는 현존 사리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조성연대를 보인 것이다.

공예적인 측면에서도 안정되고 세련된 형태, 세부 구조물을 주조하고 접합한 기법, 표면을 깎고 다듬는 기법 등에서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순하고 단아한 모습과 보주형 꼭지, 주위를 장식한 연꽃문양 등은 '공주 무령왕릉 출토 은제탁잔(525년 조성)'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 639년 조성)'를 조형적으로 연결한 도상으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6세기 전반 사리공예품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백제 왕실 공예품이라는 역사적 · 예술적 가치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절대 연대를 가진 작품성으로 우리나라 공예와 조형 예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고 국보 승격의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740년(영조 16)에 영산회상도, 제석도, 현왕도, 아미타불도와 함께 조성되어 대둔사에 봉안됐던 작품으로, 이 중 삼장보살도만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다.

가로 279cm, 세로 238cm의 대규모 화면에 천장보살과 지지보살, 지장보살 등 세 보살을 묘사한 불화로, 월륜 · 치흠 · 우평 스님 등 18세기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畵僧)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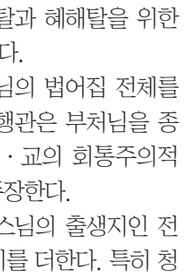
함께 지정예고된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1803년(순조 3년)에 제작된 괘불로,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 괘불 중 시기가 가장 이르고 규모도 가장 크다. 머리에 보관을 쓴 보살형 본존이 양손으로 연꽃을 받쳐 들고 정면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는 독존 형식의 괘불도다. 괘불 하단에 쓰인 화기(畵記)를 통해 직지사를 중심으로 경북 권역에서 활동한 제한을 비롯 위전 · 탄잠 · 부첨 · 신화 등 총 13명의 화승이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와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의 현황파악과 정밀기록화를 위해 진행 중인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와 '대형불화(괘불) 정밀조사' 사업을 통해 가치가 새롭게 발굴된 작품들이어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승격 예고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와 보물로 지정 예고한 '김천 직지사 괘불도'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염불선 주창 청화 스님 수증론 체계 논한다

청화사상硏, 20일 무안서 학술세미나



염불선을 주창하며 '전통불법의 재천명'을 기치로 중생들을 제도했던 청화 스님〈사진〉의 수증론 체계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 이하 연구회)는 4월 20일 오후 1시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선오후수(先悟後修)와 수증론 체계 고찰'을 주제로 제1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준호 한국외대 교수가 ''삼예논쟁'을 중심으로 고찰한 돈점과 선오후수'를, 중앙승가대 법상 스님의 '금강심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오후수와 돈점론', 황금연 경희대 교수의 '무주청화의 선오후수와 육조혜능의 돈점론에 관한 연구'가 각각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정성준 동국대 교수, 김호귀 동국대 교수, 최성렬 조선대 교수가 참여한다.

첫 발표자인 조준호 교수는 티베트 삼예 논쟁을 통해 금타 스님과 청화 스님 사상을 재조명을 재조명한다.

법상 스님은 금타 스님과 청화 스님이 명시한 해탈 16지에 담긴 선오후수의 돈오점수에 대한 정통성을 입증하고 현재 한국불교에서 두 스님의 수행법이 정해탈과 혜해탈을 위한 불가결한 법문임을 강조한다.

황금연 교수는 청화 스님의 법어집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과 수행관은 부처님을 종주로 하는 일원주의와 선 · 교의 회통주의적 관점을 기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청화 스님의 출생지인 전남 무안군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한다. 특히 청화대종사기념사업회(회장 혜용)는 청화 스님이 창건한 혜운사를 중심으로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념사업회장 혜용 스님은 "무안 출신 청화 스님은 무안을 넘어 한국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선지식"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 체계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130차 월례발표회

4월 12일 법련사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4월 12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 2층 교육관에서 제13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헌 스님(동국대)의 '청화 선사의 무아론적 사상과 실천수행'과 동명 스님(동국대)의 '진각혜심과 원감충지의 애민시(愛民詩) 연구'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마해륜 (고려대), 박재금 (前 이화여대)이 각각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